'경계'에 선 어느 코스모폴리탄의 초상

– 일본인 영화 저널리스트 츠치다 마키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차가운' 경제학와 '뜨거운' 영화, 일본인 츠치다 마키와 영화기자 박진수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의 삶은 위치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 어느 곳에서도 정주지를 마련하거나 유목민처럼 떠돌 수 있는 자유로운 코스모폴리탄, 그의 삶의 표정이 그랬다.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그와 만나기 전,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인상착의를 밝혀야 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8월 하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거대한 복합상영관 출입문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삼켰다 쏟아냈다 하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그제야 알아챈 듯 쭈뼛쭈뼛 다가온다. 후덕한 인상이다.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고 나서 우리는 서둘러 근처 유명한 냉면집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자 그가 명함을 내민다. '월간 《서울 스코프》 영화팀장 츠치다 마키(土田眞樹)'. 일본인이라는 선입관 탓인지 인터뷰하는 데 애먹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기우였다. 외국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국어에 유창했다. 흠이라면 말이 조금 빠르다는 것뿐이었다. 음식을 앞에 놓고 초보적인 신상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1965년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출신으로 미혼이며 14년 째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대한극장 옥상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유목민적인 기질을 타고난 듯했다. 규슈대학 경제학부 재학시절 호주, 유럽, 중국, 네팔,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을 혼자 떠돌았다. 그 가운데 한국은 안방 드나들듯 했다. 대학 4학년 때는 열한 번이나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거의 매달 우리 나라에 온 셈이다. 손꼽아보니 학부시절 모두 합쳐 스무 번 정도 한국을 여행했다고 한다.

경제학도에서 영화 저널리스트로

대학 졸업 후 그는 잠시 취직도 고려했다. 몇 군데 기업체에 합격했지만, 그에게 평범한 샐러리맨은 성에 차지 않았다. 좀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다. 그때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이 마음을 끌었다. 그가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전략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중국 열풍으로 모두들 중국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국어를 배워두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속셈이 있었다.

1989년 그는 연세대 어학당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명지대 일본문제 연구소에 취직해 3년 동안 재직했다.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낀 그는 1994년 고려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한다. 전공도 살릴 겸 한국도 제대로 알고 싶었다. 일본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구한말 한중 국경무역의 변천사를 주제로 선택했다. 자료 수집하느라 도서관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런데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생계문제가 코앞에 닥쳐왔다. 우연히 아는 사람의 소개로 1997년 문화잡지 《서울스코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공부는 작파할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영화담당 기자가 사직하면서 공석이 되자 자연스레 영화담당 기자로 발탁되었다. 당시만 해

도 영화판에서 일본인 영화기자는 희귀한 존재였다. 그는 '박진수'란 필명으로 국내 영화계 소식과 함께 일본 영화계 동향을 소개했다.

"예전부터 영화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화담당 기자를 맡게 되면서 영화를 깊이 배워나간 셈이죠."

그가 한국 영화계 현장에 뛰어들었을 무렵, 한국영화는 질적인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영화는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굳건한 아성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새로운 감수성과 영화문법으로 무장한 이른바 386세대 감독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한국영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접속〉 〈초록물고기〉 〈넘버3〉 〈쉬리〉 등은 할리우드 영화에 맞서 한국영화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작품들이었다.

유례없는 한국영화 전성기의 역사적 현장에 그가 있었다. 그는 일본인 특유의 친화력으로 영화계 인사들과 안면을 트면서 한국 영화계의 내막을 관찰 · 기록해갔다. 영화감독 강제규, 허진호, 영화배우 김갑수, 장동건, 이병헌처럼 쟁쟁한 영화인들의 속내를 기록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두 이질적 문화의 경계에 서서

그에겐 남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그만의 몫이 있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일 영화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 그랬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영화계의 이방인일 뿐이다. 그렇다고 일본 영화계의 내부자도 아니다. 두 이질적인 문화의 경계에 그는 서 있다. 이런 독특한 입지는 역으로 그에게 두 나라의 영화계를 한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비교 · 관찰 ·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영화 저널리스트로서 박진수의 역량은 바로 비교의 관점에서 빛을 발한다. 그는 《씨네 21》 《필름 2.0》 《스크린》 등 국내 영화전문지에 일본 영화계 분석기사를 기고하는가 하면, 일본의 정평 있는 영화잡지 《키네마 준보(キネマ旬報)》에 한국 영화계 동향을 정기적으로 싣고 있다. 그만큼 한일 영화계를 넓고 깊이 관찰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는 최고의 영화교류 사절로 꼽힌다.

"해마다 한두 번씩 도쿄에 가는데, 주로 한국영화 동향을 발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마도 한국 영화계 현장에 밀착해 큰 흐름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인들을 부러워한다고 한다. 영화 촬영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란다. 일본에서 대개 1개월만에 촬영을 끝낼 만큼 촉박하다면, 한국에서는 3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따라서 영화감독으로서는 영화에 대한 작가적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 한국영화계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 츠치다 마키 씨

"10여년 전보다 영화제작 시스템이나 관객의 수준, 작품의 질 등은 세련되었지만, 스텝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영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나 신념에만 계속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다 '어떻게' 가 더 중요

그는 매년 150편 정도의 영화를 본다고 한다. 취미가 직업이 되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떤 졸작이든 반드시 그 영화만의 명장면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고 답한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한일 영화계를 지켜보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 동안의 세월만큼 좀더 성숙한 기자이고 싶다는 말에서 그의 비범한 기개가 엿보였다.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의 약속시간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객지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 여기는 여기대로 힘들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다. 어디서 사느냐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문현답식의 이야기를 수습한 후 그는 서둘러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주온 2〉 시사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경제학와 '뜨거운' 영화, 경제학도와 저널리스트, 일본인 츠치다 마키와 영화기자 박진수, 태생지 야마구치현과 활동지 서울 충무로 사이의 어느 지점에 그의 삶은 위치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 두 면들은 그의 삶 안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숙명에 발목잡히지 않은 채 그 어느 곳에서도 정주지를 마련하거나 유목민처럼 떠돌 수 있는 자유로운 코스모폴리탄, 그의 삶의 표정이 그랬다. KOVA